

# 3년만에 10배 늘어난 재산 출처 추궁

## 박연차게이트 연루 의혹 등 여야 불꽃공방

### “특혜의혹 건설업체서 선거자금 4억 빌려”

#### ■ 김태호 총리 후보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초반부터 여야간 공수 대결이 뜨겁게 펼쳐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스폰서 의혹과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반면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의 경남도지사 시절 행정능력을 부각시키는 그의 친(親)서민 정책의지, 대북관을 묻는 등 정책 검증에 주력했다. 하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못하면 대신 답변 시간을 내주면서 적극 옹호하는 등 국회의 인사 검증 기능을 반감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연차 게이트’ 연루설=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김 후보자는 총리에 취임할 수도 없거나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도 이를 수 없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청문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김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은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이날 본격적인 논쟁이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25일 이어지는 청문회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 관련 의혹=대신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및 대출 특혜, 사인 간 대출 의혹 등에 대해 공격을 퍼부었다.

지난 2006년 말 기준으로 3천800만원에 불과했던 김 후보의 재산은 3년7개월 만에 3억7349만원으로 10배가량 늘어났으며 부친 명의로 빌린 6억원 대출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 것이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2006년 재보궐 선거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후보자 부친 명의로 대출한 6억과 지인 이름으로 대출한 4억원이 담보 없이 빌린 특혜 아니냐”며 “당시 현행법으로는 정치자금목적으로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명백한 은행법 위반”이라고 돌아붙였다.

박 의원은 나아가 김 후보자의 L아파트 매입과 관련, “채무 내역을 맞춰보니 차용증도 없고 숫자가 맞지 않는다”면서 “후보자는 동생으로부터 2008년 1억2800원

정도의 돈을 빌린 것으로 추정되나 동생의 당시 재산신고 상 채권액은 1억1800만 원밖에 안 돼 동생에게 채무가 있었는지 불확실하다” 말했다.

같은 당 이용섭은 대출과 관련, “첫째는 은행법 위반, 둘째는 대출압박, 그리고 선관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 등 3가지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 제출 자료에는 대출 10억원 중 4억원은 차입금, 6억원은 후보자 자산으로 입금했다고 돼 있다. 이 건 허위 자료”고 지적했다.

◇경남지사 재직시 의혹=민주당이 제기한 김 후보자의 경남지사 재직시 지역 건설업체 ‘스폰서’ 의혹과 김 후보 부인의 뇌물수수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역시 보궐선거 당시 거창 소재 H종합건설 대표인 최모씨로부터 4억원을 빌린 것을 놓고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최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모두 갚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차용증이나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H종합건설이 김 후보자가 거창군수로 재직하던 2003년 22억원 규모의 거창군의 재해복구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뒤 감사원 감사를 받은 데 이어 김 후보자가 도지사로 있던 2008년에는 경남도청 별관 신축시공도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 후보자가 경남지사 재직시 도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들을 사택 가사도우미로 쓰고, 부인에게 관용차와 함께 기능직 공무원(운전)을 배치해 수행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해당 직원을 직접 만나서 ‘도지사 사택에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했고 하라고 해서 밥하고 빨래밖에 안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지적한 뒤 “가사 도우미 등으로 도청 직원에게 일을 시키면 안 되도록 돼있다.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불법 행위”라고 돌아붙였다.

또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4년부터 2010년 11차례에 걸쳐 해외 휴가나 관광을 가면서 김 후보자가 모두 647만원 상당의 항공료를 썼는데 그동안 공개된 김 후보자의 지출 규모를 감안하면 비용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부인 관용차 사용...유류비 환급 하겠다”

### 재산신고 누락·직원 가사도우미 활용 등 시인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누락, 직원의 가사도우미 활용, 부인의 관용차 개인 용도 사용 등에 대해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의 재산신고에 너무 착오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실무 착오가 있었다”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남도 직원을 도지사 사택 가사도우미로 사용했다는 논란과 관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그 직원이 사택에 고정적으로 배치돼 근무한 것 아니냐. 총리 후보자는 한 달에 한두 번 밖에 일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맞지 않죠”라고

지적하자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인정했다.

경남지사 제임 시절 자신의 부인이 관용차를 개인용도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류비를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3년7개월간 재산이 10배 증가했다”며 생활비 수준을 묻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문에는 “제 생활비는 400만~500만원이 들어갔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명품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을 이 의원이 제시하자 “제 짐사탕 사진과 명품가방은 맞다. 투이 뷔통 가방”이라며 “결혼기념일 때 제가 선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부동산 거래 17건 투기 아니냐” “위장전입·아내 위장취업 죄송”

#### ■ 신재민 장관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차량 스폰서 문제, 부인의 위장 취업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24일 청문회에서 “17건의 부동산 거래 중 주거목적은 3건에 불과했다”며 “사고 파는 과정에서 모두 투기 의혹이나 분양권 전매와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12억원의 재산이 늘었는데, 신 후보자의 연봉 등을 감안할 때 최저생계비만 쓰고 소득을 모아야 현재의 재산 형성이 가능하다”면서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면 ‘달인’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전업주부였던 신 후보자의 부인은 남편이 실직만 하면 반도체회사, 설계감리회사의 비상임감사와 자문위원으로 둔갑, 9천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며 “이는 국민의 근로의욕을 짓밟는 행위”라고 부인의 위장 취업을 의혹을 제기했다.

역시 같은 당 천정배 의원은 신 후보자의 자녀가 모두 외국고등학교에 진학한 점을 지적하며 “왕따여서 위장전입 했다가보다 좀 더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 했다고 하는 것이 더 멋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에 대한 차량 스폰서 의혹 등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장병만 의원은 이날 오전 신 후보자에 대한 문공위 인사청문회에서 “2007년 안국포럼, MB대선캠프, 인수위 재직 시절, 즉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용했던 렌터카의 사용 비용을 J사라는 건설업체가 납품업체가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장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문공부 차관에 임명되기 전인 다음 해 3월까지 차량(그랜저 TG)을 렌트해 사용했고, 앞서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이 차량을 렌트한 J사와의 차량 임대계약서에는 신 후보자의 차량 번호가 기재돼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신 내정자는 위장전입과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의 질문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범법자들 데려다 놓고 조폭 중간보스 뽑냐”

#### 최문순의원 발언 공방

23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폭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범법자, 법률 위반자들 데려다 놓고 장관 시켜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항의한다”며 “우리가 ‘서방과’, ‘철성과’ 조폭 중간보스 뽑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미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도 장관 자격이 없으며 한나라당에서도 ‘김신조’(김태호-신재민-조현오)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신 내정자를 향해 “자

신 사퇴할 뜻이 있느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또한, “신 내정자도 언론인 출신이고, 기자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신 내정자는 지난 13년 동안 10건의 부동산 매매를 통해 19억2000만원을 남기는 등 매우 적극적이고 상승적인 투기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의원의 ‘조폭 발언’과 관련,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장관 임명 제청권자(대통령)가 국민이 볼 때 조폭이나 범법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했겠느냐”며 “이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얼굴을 붉혔으며 한나라당 의원들도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이 여행사**

234-3222

★가게리더★1박2일 투어패키지 - 스포츠가 중심인 패키지 - 299,000~

★가솔린구동형 캠핑카 렌탈 패키지 1박 2일 - 329,000~

**일본 규슈관광 ALL 포함**

- 일본 규슈권 1박2일 (일본 규슈권 여행) 패키지 - 4일 = 549,000
- 규슈권 스포츠카 렌탈 패키지 - 4일 = 569,000
- 규슈권 투어패키지 (일본 규슈권 여행) 패키지 - 4일 = 599,000
- 일본 규슈권 1박2일 (일본 규슈권 여행) 패키지 - 4일 = 629,000
- 가솔린구동형 캠핑카 렌탈 패키지 - 329,000
- 가솔린구동형 캠핑카 렌탈 패키지 - 369,000

**무산 갈매기 퇴환**

무산 갈매기 퇴환 패키지 - 299,000~

**무산 대안 작업**

무산 대안 작업 패키지 - 299,000~